

특별기획

군산시-서천군, 복지효율화  
상생 협력체계 구축

군산시와 서천군이 올해에도 복지효율화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지난 14일 군산시청에서 자활·노인·장애인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찾고 상호 상생협력력을 구축하고 자 우수사례 공유 및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업무 연합회를 실시했다.

이날 연합회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상생협력과 소통이 앞으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양 기관은 업무연찬을 통해 지역자활사업 운영전반에 대해 교차점검을 실시해 운영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한 결과 군산시와 서천군의 지역자활센터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이뤘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중앙지구대, 공조수사  
길 잃은 노인 가족에게 인계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에서는 지난 13일 밤 "아버지가 익산에 사는데 술에 많이 취해 어딘지 모르겠다고 전화가 왔다"라는 내용으로 익산경찰서 서부파출소로 접수된 신고의 공조수사요청을 접하고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기지국 주변을 면밀히 수색한 끝에 민원인 상태로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여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계해 귀감이 되고 있다.

경위 한규철, 순경 김현남은 익산경찰서로부터 공조수사 요청을 받고 아버지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여청수사팀에 위치추적 의뢰한 결과 남중동 세무서 주변으로 확인되어 면밀히 수색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은 포기하지 않고 추운 날씨에 해매고 계실 할아버지를 생각하여 수색 범위를 확대하여 주변 곳곳을 수색한 끝에 남중동 북부시장 내 신협 앞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여 전주에 사는 딸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 주택문화창의센터  
소외이웃 난방단열사업 추진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가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단열사업에 힘쓰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은 경제적 이유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채 동절기를 맞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특히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은 오래된 출입문과 창문, 고장난 연탄보일러 때문에 겨울철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다.

시는 소외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난방단열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외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택문화창의센터에 연락할 수 리고혜서비스 발가를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

군산시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직업재활의 기초교육과 지식을 쌓아 취업·창업의 문을 넓혀 지역사회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군산시는 지난 14일 문동신 시장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장애인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명동 소재 산돌학교에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했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사)산돌에서 지난 8월 위탁 받아 2018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자립기초·미술·생태놀이·민들레·음악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단체의 욕구에 맞춰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내 전문요원 3명을 채용해 업무의 효율을 기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기자

행자부 자전거 우수시책 공모전 '자전거도로 안전, 자활사업 협약 시책'

군산시 안전사고 예방분야 우수상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공모한 자전거 우수시책 공모전에서 군산시가 안전사고 예방분야 자전거도로 안전, 자활사업 협약 시책이 전국 우수시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자전거 보유 천만시대대를 맞이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행자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전거도로 공모결과 39건의 우수시책이 접수되어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등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국민이 참여하는 인터넷 투표를 통해 지난 12일 선정된 8건의 우수시책 중 군산시는 우수 자전거도로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는 금강자전거길과 시내 자전거도로 제조작업과 청소 등 유지관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협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도로 유지관리 등

자활사업 협약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활사업 영역확대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유지관리 예산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자전거도로 안전, 자활사업 협약 시책'은 지난 7월 군산시와 군산지역자활센터가 전국 최초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해 자활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금액 없이 자전거도로 제조작업과 청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검거

<망목규정>

배타적경제수역 진입 조업·한중어업협정상 사용하지 못하는 그물 사용 혐의

치어까지 씩살이해 어장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물을 사용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지난 13일 오후 8시50분께 군산시 육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46km 해상에서 EEZ어업법 위반(망목규정) 혐의로 148톤급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조사 결과 이 선박들은 지난 5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같은 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진입 후 조업

했으며, 한중어업협정상 사용하지 못하는 그물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그물은 직경 35mm로 허용기준 50mm를 초과해 치어까지 씩살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초기 등 17.5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의 특별단속이 시작된 후 우리 EEZ 해상으로 무허가 중국어선 출몰은 줄어들고 있으나, 불법 어구(漁具)를 사용하는 행위가 포착됨에 따라 해경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해경 장인식 서장은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도 큰 문제지만, 허가된 중국어선에서 사용하는 그물이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검거된 중국어선에서 잡은 수산물을 모두 압수하고 사용한 그물을 폐기처분할 방침이며, 위반사행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원광대학교병원, 핑크리본 유방암 공개 건강강좌 성료

최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 외래관 4층 대강당에서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핑크리본 유방암 공개 건강강좌가 열렸다.

총 3부로 나뉘어 진행 된 이번 유방암 공개 건강강좌는 유방암 환우들을 비롯해 보호자 및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해 유방감상선외과에서 주최했다.

이날 건강강좌 제1부에서는 언론에 비친 유방암(유방감상선외과 원태완 교수), 유방암의 영상검사(영상의학과 김혜원 교수), 유방암의 치료(유방감상선외과 이광만 교수)에 대한 강의에 이어, 제2부에는 유방의 ER, PR, 병리, 조직 사진(병리과 김현수 교수), 유방암 환자의 재활치료(정유진 직업치료사), 유방암 이후의 식이·생활요법(유방감상선외과 최은정 교수) 등 유방암 환우들에게 소중한 내용과 정보들이 전달 됐다.

피날레를 장식한 마지막 3부에서는 유방암 환우들을 위해 의료진들이 준비한 "이름다운 세상 걱정 말아요 그대"를 3곡의 합창곡을 열창 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날 열린 유방암 건강강좌에서는 원내 웃음치료사들의 웃음치료도 빼 놓을 수 없다. 강의 사이마다 진행된 웃음치료들로 건강강좌에 대체로



최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 외래관 4층 대강당에서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핑크리본 유방암 공개 건강강좌가 열렸다.

움도 더하고 다함께 참여하는 화기에 애환 분위기에 가득 차 있었다.

원광대병원은 2003년 유방암 환우들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해바라기"라는 유방암 환우회 모임을 설립, 꾸준한 모임과 건강강좌들을 통해 질환치료, 건강관련 정보 나눔은 물론 사회생활 적응까지 많은 활동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다.

최운정 원광대병원 유방감상선외과

장은 "모든 암 질환들이 치료 후 질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방암은 관리에 있어 특히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질환 관련 정보 제공은 물론 모임과 건강강좌들을 더욱 활성화 시켜 많은 환우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고도지역 주민들이 손수 만든 한지등공예 작품 전시회

고도지역 주민들이 손수 만든 한지등공예 작품이 10일까지 금마면 주요 가로변에 전시된다.

주민 전통 한지등공예 제작 사업'은 2014년부터 고도의 야간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다. 고도지역의 각종행사나 주민축제, 서동축제, 국화축제 등에 매년 작품을 전시해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처음 20여명의 회원의 참여로 시작된 한지등공예제작 사업은 꾸준한 관심과 호응으로 현재 30~40명 정도의 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고도 금마면이 지닌 독특한 역사 문화자원들을 주 테마로 기획해 한지등공예 작품을 만들고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4개 고도 중 주민들 스스로 전통 한지등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전국 첫 시제로 등공예회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작품제작과 전시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서동요의 고장답게 사랑을 주 테마로 선정해 '빛의 축제', '나와 너', '한나리'를 이루는 사랑' 등을 주제로 대, 소형 하트 등을 만들어 소원을 적어 달았다. 또한 자연을 소재로 한 곤충, 꽃, 새, 호박, 풍요를 나타내는 사랑의 곁과물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회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금마면사무소 옆 주요가로변에서 마을주민들의 풍물공연, 전통 다도 차치리과 함께 시작된다. 올해 전시회는 2014년에 제작된 주마등, 사리장엄, 미륵담, 왕궁담, 기와집, 당간자주, 2015년 주마등 향이리, 북주머니, 서동마, 연꽃, 물결 등의 작품과 함께 200여점이 설치 전시된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대구 계명대, 정기 교류행사 개최

원광대학교와 대구 계명대학교 2016년 정기교류행사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원광대에서 열렸다.

영·호남 대학의 친목 도모와 양교 발전을 위한 교류를 목적으로 1988년 5월 자매결연을 맺은 양교는 매년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 및 부서장들이 상대 학교를 방문해 간담회와 친선 야구경기, 합동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원광대 총장 일행이 계명대를 방문한데 이어 올해는 계명대 총장 일행이 원광대를 방문해 친선야구경기를 가졌으며, 우의 증진을 위한 간담회에 이어 계명대 코어사업 및 원광대 프라임사업 등 양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14일 진행된 국책사업 설명회에서는

각 대학이 추진 중인 사업 소개와 추진 방향을 비롯해 성공적인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고, 토론이 펼쳐졌다.

김도중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불교와 기독교는 종교와 영·호남 지역을 뛰어넘는 양교의 뜻깊은 교류활동이 벌써 18년이나 됐다"며, "지방에 있는 대표 사학으로서 양교가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신일희 총장은 "원불교 100주년과 원광대 개교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형제처럼 편만한 마음으로 매년 교류행사를 이어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협력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해양수산정책협의회 전북도청서 20일 개최

전북지역 해양수산분야 관련기관 및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제2차 전북해양수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오는 2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마련, 새만금 신항만 건설, 신서천화력발전소 사업인 피해 대책 마련, 해파리 적조 발생시 대책 등 전라북도의 해양수산분야 현안사항 4건, 협의안건 2건 등에 대해 토론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해양수산발전협의회는 지난 6월 15일 2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해양수산사업 활성화 및 현안사항 해결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출범했다.

군산해양수산 관계자는 "전북해양수산발전협의회가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참여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실시

군산시는 상위법령 개정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 및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산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오는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건축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 전라북도 건축심의 통합기준 마련에 따른 건축심의 신청서류 간소화 ▲ 1,000㎡ 이하의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마련(한시적 운영) ▲맞벌이 대상 건축물

의 허용용도 확대 ▲공업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가능면적 축소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완화 등이다.

특히 건축행정 절차 중 많은 민원의 대상이었던 건축심의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완화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의 창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업지역에서의 대지분할 가능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근기자